

예맥문화론 (穢貊文化論)

최 무 장

(건국대학교 사학과교수, 고고학)

- | | |
|---------------------|----------------|
| 1. 시작말 | 4. 맥계의 원류(源流) |
| 2. 예계(穢系)의 4가지 문화유형 | 5. 고인돌축조와 족속문제 |
| 3. 맥계(貊系)의 5가지 문화유형 | 6. 종합고찰 |

1. 시 작 말

예맥(穢貊)은 현 중국동북지구에 살았던 하나의 족계(族系)이다. 예맥족은 부여(扶餘), 고구려(高句麗), 옥저(沃沮) 등의 여러족으로 발전되었다. 예맥족의 일부가 한반도에 이주하였으며 그중 다수가 중국동북지방에 오래 살았었다. 필자는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서 예맥족에 대한 원류를 찾기위해서 이미 두편의 논문을 쓴바 있다. 한편은 『예맥족과 서단산문화』¹⁾ 그리고 다른 한편은 『예맥족과 서단산문화론』이다.²⁾

다시한번 예맥문화에 관한 전반적인 문화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예(穢), 맥족(貊族)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수집과 필자가 평소에 생각하던 요동반도의 고인돌(석봉(石棚))의 축조가 한반도 청동기 시대의 석곽묘(石槨墓)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의견과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을 중국학자 왕홍봉(王洪峰)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요동반도 일대의 고인돌(석봉묘(石棚墓))의 축조자는 맥인(貊人)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³⁾ 왕홍봉(王洪峰)은 그의 논문 p.254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종합하면 고인돌은 맥인(貊人) 및 그의 선조의 전존물이다. 구역간의 차이는 여러 부락집단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서(史書)속의 맥(貊)이 여러 종(種) 또는 별종(別種)이 있다는 기록과 일치하다. 더 옥 과거의 학자들은 고인돌은 동이족(東夷族)의 잔존물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는 상주(商周) 시기의 사서(史書)속에 동이(東夷)가 산둥소북(山東蘇北)의 연해에 있는 여러부락을 지적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그리고 동북(東北) 남북의 지석묘가 예맥족(穢貊族)의 작품이 뚜렷한 이상 우리(王洪峰)는 상기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1) 최무장, 穢貊과 西團山文化,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1992, pp.1117-1136.

2) 최무장, 穢貊族의 西團山文化論, 於江權兌遠教授停年紀念論叢, 1994, pp.17-55.

3) 王洪峰, 石棚墓葬研究 青果集(吉林大學考古專業成立 20周年考古論文集), 智識出版社, 1993, pp.245-255.

綜上, 我們認爲石棚墓是獏人及其先世的遺存, 區域間的差異應是諸部落集團的差異, 這和史(중상, 아문인위석봉묘시맥인급기선세적유존, 구역간적차이웅시제부락집단적차이, 저화사書中獏有多種或別種的記載亦相吻合. 至於以往有同志關於石棚爲東夷遺存的意見, 由於商周時서중맥유다중혹별중적기재역상문합. 지어이왕유유동지관어석봉위동이유존적의견, 유어상주시期史書中的東夷似專指山東蘇北의沿海諸部, 東北南北之爲獏亦明證, 故我們不同意)기사서중적동이사전지산동소북적연해제부, 동북남북지위예맥역유명중, 고아문부동의)

이러한 내용을 조금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예(穢)와 맥(獏)의 분류이론과 예맥의 종합적 성격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2. 예계(穢系)의 4가지 문화유형

중국학자 손진기(孫進己)와 장지립(張志立)의 주장내용을 살펴보자. 그들은 예(穢)의 4가지 문화유형과 맥계(獏系)의 5가지 문화유형을 분류 제시하고 있다. 예계문화는 송화강(松花江)평원의 토착민의 문화이며 이 문화의 경제적인 특징은 농업이다. 문화특징은 토기는 무문이며 문양 및 점토흙을 입히지(slip) 않았다. 석기는 대부분 대형의 마제석기이다. 무덤은 석괴(石塊) 및 판석을 쌓아서 돌무덤(석관(石棺))을 만들었다. 예계의 문화는 4지구에 4가지문화 유형을 가지고 있다.

1)길림장춘(길장(吉長))지구 서단산문화, 2)연변지구의 달결문화(團結), 3)통화(通化)지구는 휘발하 유역 및 혼강(渾江) 압록강 유역을 포함한다. 4)한반도 북부지구의 무문토기문화.

상기한 4지구를 조금 더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1) 서단산(西團山)문화

서주(西周)시기로부터 진한(秦漢)때까지 길림장춘지구에 분포된 문화. 이 문화는 송화강 상류 및 이통하(伊通河)유역에 분포되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동료하(東遼河)상류까지 이르렀다. 서단산문화의 석기는 절대다수가 마제이다. 그것들은 돌도끼, 돌자귀(□), 돌끌, 돌작은 삽(산(鏟)), 돌보습(거(耩)), 돌갈, 돌낫, 돌창, 돌검, 환상석기, 구멍뚫린 석구(石球), 구멍뚫린 돌마치, 석제 방추차, 솥돌 등이다. 그 중 긴 곤봉형 돌도끼와 반월형석도가 가장 특색이 있으며 타제의 허리가 잘록한 돌호미(석서(石鋤))가 있다. 토기는 수제(手製)무문의 갈색사질 태토로서 솥(정(鼎)), 솥(격(鬲))시루, 호(壺),단지(관(罐)), 바리(발(鉢)), 옹기, 대접(분(盆)), 작은사발(완(碗)), 소반(반(盤)), 제기(두(豆)), 잔(배(杯)), 밥그릇(우(盂)) 등이 있다. 청동기는 창, 검, 화살촉, 도끼, 칼, 단추형 장식 등이다. 주거지는 반수혈주거지로 전기, 중기는 석괴(石塊)로 주거지 기반부를 만들었다. 주거지의 평면은 원각 장방형이다. 무덤의 재료는 판석 또는 돌편(석괴(石塊))이다. 서단산문화의 족속(族屬)은 처음에 모두 숙신족(濊愼)으로 생각하였으나 근래는 모두 예맥(穢獏)족에 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穢)와 맥(獏) 두족이 합하여져서 예맥으로 불리우게 된 것은 춘추(春秋)(기원전 770~476년)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이전의 사료속에서는 분류되어 있다. 서단문화의 상한은 서주(西周)(기원전 1100~771년) 시기로 보

고 있다. 어느 학자는 서단산문화는 토착(土着) 예인(穢人)의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단결문화(團結文化)

단결문화는 전국(戰國)으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연변지구와 그 부근 지구에 분포된 일종의 문화이다. 동쪽으로는 러시아 경내의 그라노소프스카(克羅鳥讓夫卡), 그리고 남쪽으로는 한반도의 함경북도, 서쪽으로 연길(延吉), 북쪽으로는 동녕(東寧)에까지 이르렀다.

단결문화의 특징은 석기는 대부분 마제이다. 석기는 돌도끼, 돌자귀, 돌칼, 돌낫, 돌촉, 돌창, 돌검과 환형석기 등이다. 그중 방형가로단면의 네모난 돌도끼는 납작한 날 또는 가볍게 움푹 패인 날의 칼 및 긴 창 등은 특색이 있으며 소량의 처동기로서 단추형장식이 있다. 토기는 수제, 거칠며 모래가 섞인 갈색에다 기벽은 비교적 두텁다. 모두 무문이다. 기형으로는 옹기, 단지, 잔, 제기(두(豆)), 병 등이다. 삼족기는 없으며 대부분 원통형이다.

이 문화의 주인공은 어느 학자는 북옥저(北沃沮), 어느 학자는 전체 옥저인(沃沮人)인의 문화로 보고 있다. 옥저(沃沮)가 최초로 사서에 보이는 것은 서한(西漢)(기원전 206~기원 8년)때이다. 그 분포범위는 연변 및 그 인근 지역이다. 문화의 전제 시기 및 분포범위는 모두 단결문화의 존재시기와 분포범위에 해당된다. 이로 인하여 단결문화가 옥저인(沃沮人)의 문화라는 것은 정확하다. 옥저인(沃沮人)은 예(穢)계에 속하며 이후에 모두 예맥(穢貊)이라고 칭하였다. 동시에 단결문화와 서단산문화는 공통성이 대단히 많다. 따라서 단결문화는 예인(穢人)의 문화속에 귀속된다. 단결문화(團結文化)의 상한(上限)은 전국(戰國)시기에 이르며 중국사서내에 옥저(沃沮)의 출현시기보다도 이른다.

단결문화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평동(柳庭洞) 유형과 단결문화의 계승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3) 휘발하·혼강·압록강유역의 문화유적

이 지구는 아직 정식으로 부르는 문화(文化)명칭은 없다. 그러나 이 지구의 대부분의 유적은 동일문화유형에 속한다.

휘발하(輝發河)유역의 토기는 대부분 무문에 모래섞인 갈색토기이다. 태토는 연질이며 소성도가 낮고 기벽은 두텁다. 기형으로는 제기(두(豆)), 바리(발(鉢)), 단지 등이다. 삼족기는 드물다. 석기는 마제로서 돌도끼, 돌칼, 돌낫, 돌삽 등이 있다. 그중 사다리꼴형 칼은 특징이 있다. 연대는 대략 서주(西周)로부터 한 대(漢代)까지 이른다. 어느 학자는 두 시기로 나누어 서주(西周)에서 춘추(春秋)까지를 한시기, 전국(戰國)(기원전 475~221년)에서 한(漢)까지를 한시기로 주장하고 있으나 층위관계제시가 아직 없다.

족속은 예맥족(穢貊族)의 잔존물로 보고 있으나 어느 학자는 서단산문화와 접근된 것으로 보아 예계(穢系)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강(渾江)유역의 원시문화 : 생산도구는 대부분 타제의 돌쟁가비(호(鑄)쟁가비호)와 어망추이다. 돌도끼는 납작한 장방형이다. 때로 돌창(순(矛))도 있다. 토기는 무문수제로 거칠은 갈색토기이다. 기형은 대부분 단지와 제기(두(豆))이다. 손(정(鼎)), 솥(격(鬲)) 등은 보이지 않으며 수직의 손잡이(견이(堅耳))가 성행되었다. 연대는 신석기후기후기부터

고구려 초기까지, 즉 주(周)로부터 서한(西漢)까지 해당된다. 족속(族屬)은 어느 학자는 예맥족의 문화유적, 어느 학자는 고구려인들의 초기활동의 장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손진기(孫進己)는 고구려족의 형성은 서한(西漢)때이며 이 문화의 기초는 한(漢)이전으로 보고 있다. 즉 고구려 초기 문화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고구려 문화의 내원(來願)은 복잡하며 북쪽의 부여문화(部餘文化) 그리고 서쪽의 동이족(東夷族) 및 연문화(燕文化)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선고구려문화(先高句麗文化)라고 칭하는 것은 옳지않고 오히려 고구려족 기원의 하나인 예인(穢人)의 한가지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4) 한반도 북부원시문화는 생략한다.

3. 맥계(貊系)의 다섯가지 문화유형

맥계(貊系)의 문화에 대하여 과거에 명확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한서문화(漢書文化), 전가택문화(田家柁文化), 백금보문화(白金寶文化)가 계속적으로 발견되면서 예맥의 관계가 확정되었다.

맥계의 5가지 문화 유형

- 1) 백금보(白金寶)-한서(漢書)하층문화와 망해둔(望海屯)-한서(漢書)상층문화
- 2) 농안전가택자(農安田家柁子)유형
- 3) 동요하(東遼河)유역의 여러유적
- 4) 강평순산둔(康平順山屯)유형
- 5) 고태산(高台山)상층-신락(新樂)상층유형

이러한 문화유형은 비록 공동성은 있지만 상호 시간차이는 크다. 동시에 각 문화의 유형은 모두 여러종류의 문화인소로 혼합되었으며 소재지의 차이에 따라서 혼합내용도 다양하다. 그것들의 시기도 전기와 후기 등으로 나누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무화유형을 하나의 문화 또는 하나의 문화 계열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1) 백금보

한서하층문화와 망해둔(望海屯)-한서(漢書)상층문화. 이 두 개 문화유형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문화계열로 보고 있다.

백금보(白金寶)-한서하층문화의 분포범위 : 북으로 우수리강(조유리하(鳥裕籬河))유역, 남쪽으로 조기하(桃幾河)유역, 동으로 조동(肇東), 망규(望奎), 서로 진뢰(鎮賚) 등이다. 연대는 서주(西周)(기원전 1100~771년)로부터 춘추(春秋)(기원전 770~476년)에 해당된다. 이 문화특징은 주거지는 반수혈이다. 무덤은 수혈토광묘이며 석관은 없다. 토기는 솥(甗(鼎)), 역(鬲), 대접(盆), 호(壺), 단지, 잔 및 토제기대(도지좌(陶支座)), 토제 방추차 등이다. 기표면은 마연되었으며 빗살무늬가 있으며, 태토는 경질이다. 청동기는 축, 칼, 동물형패식(패식(牌飾)) 등이다. 석기는 마제, 압력제로서 돌도끼, 돌칼, 돌촉, 연석 등이 있다. 동시에 일정량의 골기가 있다. 경제생활은 목축, 어로, 농업 등이다. 이 문화는 하가점상층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한서상층-망해둔문화유형연대는 전국(기원전 475~221년) 서한(기원전 206~기원 8년)에 해당되며 분포범위는 한서하층보다 약간 넓다. 토기는 채색과 슬립한 것들이 현저히 증가된다.

청동기외에 철기도 출토된다. 구멍뚫린 찰갑의 출현으로 군대가 출현된 것을 표명하고 있다. 토제어망추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어업발달을 나타내었다.

한서하층의 족속은 예맥(穢貊)족으로 인정하고 한서상층은 부여족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어느 학자는 망해둔(望海屯) - 한서상층문화를 고리(藁離)문화로 보고 있다.

예맥(穢貊)두족의 합칭은 춘추(기원전 770~476년)이후에 실시되었다. 백금보- 한서하층문화는 춘추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맥의 통칭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고 맥인문화(貊人文化)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금보와 하가점상층문화의 밀접한 관계는 맥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서 상층-망해둔문화를 부여문화로 보는 것은 장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여의 명칭을 서한(기원전 206~기원 8년)에 보이며 전국시에는 부여의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한서상층-망해둔문화는 부여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되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서상층-망해둔 문화를 고리(藁離)문화로 보고 있다. 즉 서분구(西盆溝)문화 및 같은 시기의 동요석역채봉(東遼石驛彩鳳) 등 유적을 부여초기(기원전 2~1세기)의 문화, 대파(大坡), 통유(通榆) 등의 유적을 부여극성기(기원 1~3세기)문화로 보고 있다.

2) 전가택자(田家柁子)문화

분포범위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연대적으로 한서상층과 같거나 약간 늦다. 문화특징은 반수혈의 원각방형주거지, 주거면을 불로 태웠다. 토기는 고운 태토의 홍갈색, 모래섞인 갈색의 솔(정(鼎)), 단지, 호, 옹기 사발(바리), 제기(두(豆)) 등이다. 방형의 이중구연은 이 문화의 특징이다. 또한 드물게 흑형의 손잡이와 가로 놓인 교량형 손잡이가 있다. 기표는 대부분 무문이며 소수의 선문, 승문, 손톱문과 채색과 빗살문의 조합된 기하도안문이 있다. 석제는 드물고 청동축이 있다. 전가타자문화는 한서상층문화와 많은 공통성이 있다. 예로 기형은 균일하게 단지, 호, 바리(발(鉢))등이며 문양과 채색 등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은 솔, 손잡이 달린 잔, 배형기 등이 한서 상층에 보이는데 전가타자에는 없다. 호, 단지형제 및 채색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문화에 대하여 손진기 등은 한계통에 속하는 다른 문화로 보고 있다. 족속에 대해서는 부여문화의 또다른래원(來源)으로 보고 있다.

3) 동요하중하류의 문화유적

동요하중하류의 문화유적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상류에는 대부분 타제 또는 마제의 돌도끼, 돌삽, 돌창이 보이며 하류에는 주로 쪼아서 만든 세석기가 대부분이다. 상류의 토기는 대부분 각종 선으로 처리된 획문과 압인문이며 중류는 두종류의 토기가 병존되었다. 따라서 서부지구는 한서문화 및 신락상층문화의 영향을 받고 동부지구는 서단산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 지역의 장법(葬法)은 토광이 깊지 않으며, 관곽이 없고 동부지역의 많은 석관과는 다르다. 종합하여 서부지구는 맥계에 속하고 동부지구는 예계에 속한다.

4) 강평순산둔(康平順山屯)유형

주로 강평 서남부 및 팽식(彭式)에 분포되었다. 연대는 상(商)(기원전 1600-1100년)주(周) 시기이다.

주거지는 반수혈이다. 상태는 말각방형이며 저장고는 포대주머니형이다. 무덤은 토광묘이다. 토기는 수제, 모래섞인 홍갈색, 회갈색 등이다. 기표는 마연되고, 구연아래에 개별적으로 손톱무늬가 있다. 기형은 술, 바리, 호와 두손잡이 단지이다. 이 문화는 한서, 전가타자문화와 공통성이 크며 하가점상층문화와 유사하다. 그러나 자체의 특징도 있다. 이 문화의 족속은 맥계로 보고 있다.

5) 고태산(高台山)상층-신락(新樂)상층문화

분포는 요하, 혼하지구에 분포된 청동기문화이다. 존속시간은 서주부터 춘추전국까지 약 1,000년으로 보고 있다. 토기는 수제, 모래섞인 홍갈색, 소성도가 높다. 기형은 술(甗), 술(斝), 시루, 옹기, 호, 제기, 단지, 바리, 사발 등이다. 대부분 평저이다. 삼족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 토기손잡이는 교량형위주이다. 기표는 대부분 무문이다. 소량의 홍도가 마연되었고 슬립이 덮혀 있었다.

문양은 손톱압인문, 획문, 옹기문, 방격획문 등이다. 석기는 마제이며 납작한 돌도끼와 반월형 석도가 있다.

심양 정가와자의 2기 청동기시대무덤은 모두 이문화의 후기에 속한다. 이 문화의 족속은 동호족 또는 예맥족으로 보고 있다. 손진기 등은 발(發)(맥(貊))은 심양지구에서 살았던 족속으로 신락상층-고태산상층문화유형은 발(發)(맥(貊))의 유적의 가능성이 있으며 당연히 맥계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4. 맥계의 원류 (貊系의 源流)

중국 동북쪽의 맥족에 대한 원류를 손진기 등은 상기한 바와 같이 5가지 문화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요녕성 고고학회에 속하여 있는 김악(金岳)은 보다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김악(金岳)의 주장내용을 살펴보자.

맥족은 중국동북 고대민족(古代民族) 중 대단히 강한 민족으로 일찍이 예맥(穢貊)을 북방(北方)의 민족(民族)으로 칭하였다. 예맥(穢貊)은 삼대전(三代前)의 북발(北發)에서 기원되어嫩江(嫩江)유역에서 흥기(興起)하여 요하(遼河)이북까지 확장되었다. 맥인(貊人)들은 초원지대를 가로질러 연(燕), 조(趙), 진북(秦北)변경까지 왔으나 좌절당하였다. 그래서 맥인(貊人)의 일부는 혼강(渾江)과 양수(梁水)지역으로 방향을 전향하였다. 맥인의 일부가 부여산(扶餘山)으로 들어가서 부여(扶餘)로 이름을 고쳐서 길림(吉林)과 장백산지구(長白山地區)로 내려갔다. 부여(扶餘)의 후예인 고구려(高句麗)는 요동(遼東)과 한강(漢江)북쪽으로 도착하고 고구려 후예인 백제(百濟)는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갔다.

4) 孫進己 張志立, 穢貊文化的探索, 遼海文物學刊(創刊號), 1986, PP.67-75.

그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긴 여정을 경과하는데 천수백년이 걸렸다. 그들은 동북민족사상(東北民族史上)생명력이 강한 민족으로 불리우고 있다.

북발(北發)은 중국동북(東北)지구의 오래된 민족이다. 중국은 요순(遼順)시기에 산융(山戎), 숙신(肅慎) 등과 같이 중국동부에 거주하였다.

북발(北發)의 지리적위치는 북산성(北山成)과 숙신(肅慎)의 중간에 있었다. 그 내용이 <대재찰기(大載札記)>와 <사기(史記)>에 기록되었다. 길림성장춘시(吉林省長春市)嫩江)유역의 서쪽 대안현(大安縣)의 조기하(洮幾河)하류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유적은 장춘시 서북쪽의 눈강본원에 있는데 그 지리적위치와 시대는 모두 요순(遼順) 및 그 전후의 발인(發人)활동범위에 해당되며 그 곳 무덤에 매장된 사람도 발인(發人)의 유해로 보고 있다.

발인(發人)이 그 지구에서 생활한 시간이 대단히 길어서 중국의 우(虞), 하(夏), 상(商), 주왕(周王) 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발(北發)은 서주중기에 맥(貊)으로 고쳐진다. 발(發)은 발(潑)로도 읽는다. 발(潑)족, 맥(貊)은 동일한 발음이 변한 것이다. 발(發)은 맥의 조상이다. 맥인은 발인(發人)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원래 본(本)은 일족(一族)이다. 북맥(北貊), 북맥(北貊)은 북발(北發)의 성(聲)의 변음이다. 맥족(貊族)은 발족(發族)에서 발전되었다. 맥족(貊族)은 고(古)사료에 기록이 많으며 <상서(尙書), 무성(武成)>에도 기록되었다. 북방민족(北方民族)은 최초로 서주(西周)의 선왕(宣王)때 <한혁(韓奕)>, <대아(大雅), 한혁(韓奕)>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북맥(北貊)은 춘추(春秋)시기에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였다. 춘추(春秋)후기에 이르러 요하(遼河)이북까지 확장되었다.

연인(燕人)들이 요하(遼河) 북쪽에서 맥국(貊國)을 멸망시킨다. 맥국(貊國)이 멸망된 후 맥인(貊人)의 잔류가 습격을 당하자 그 중 일부가 부여산(扶餘山)으로 들어가 부여(扶餘)로 이름을 고친다. 즉 주말 한초(周末 漢初)(서한(西漢) 기원전 206~기원8년, 동한(東漢) 기원 25~220년)에 부여족(扶餘族)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부우산(附禹山)은 합달령(哈達嶺)의 고명(古明)이다. 부우(夫禹) 즉 부여(扶餘)는 부우산(附禹山) 또는 부여산(扶餘山)이며 현 합달령(哈達嶺)이다. 부여족(扶餘族)의 명칭은 이 산에서 왔다. 맥인(貊人)들은 부여(扶餘)산에서 부여(扶餘)로 개명한 후 오래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서서히 회복하여 다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부여(扶餘)는 북부여(北扶餘), 동부여(東扶餘), 졸본부여(卒本扶餘)로 나누어 불리어졌다.

북부여(北扶餘)는 부여산(扶餘山)(현 합달령(現 哈達嶺))에서 역량(力量)을 강화시킨다. 그러나 서남쪽의 연국(燕國)을 두려워해서 그 들 중 일부가 북쪽으로 확장하여 현 길림시지구에서 예족(穢族)을 몰아내고 예족(穢族)의 도성 즉, “예성(穢城)”을 차지한다. 그 곳은 산언덕이 많으며 넓은 소택지가 있어서 동이(東夷) 지역에서 가장 평탄한 장소이다. 토양이 비옥하여 농사가 적합하여 그 곳에 나라를 세워 북부여(北扶餘)라고 칭하였다. 동부여(東扶餘)에 관해서는 사서(史書)의 기록은 없다. 최초의 기록은 <광개토왕비>의 기록에 있다. “동부여(東扶餘)는 옛 추모왕의 속민이다.”(동부여시구추모왕속민(東扶餘是舊鄒牟王屬民)) 부여족(扶餘族)이 백민족(白民族)과 융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왜냐하면 부여(扶餘)족은 언제나 흰옷을 입었다. 북부여(北扶餘), 동부여(東扶餘), 졸본부여(卒本扶餘)는 해모수, 유화, 주몽과 관계가 있으며 백민족과 융합된다.

졸본부여(卒本扶餘)는 <한서(漢書)>, <삼국지(三國志)> 등에는 기록이 없다. 동명신화에서 전하여졌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동명왕은 북부여

(北扶餘)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동명제계북부여이흥(東明帝繼北扶餘而興))”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명왕은 부여(扶餘)로부터 부여(扶餘)땅 졸본(卒本)에 남하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를 세웠다. 동명왕의 자식들은 각각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세웠다.

고구려(高句麗), 고려족(高麗族)은 또한 고구려(高句麗)라 부르며 졸본부여(卒本扶餘) 유리왕(琉璃王)이 한의 현도군 고구려현(高句麗縣)을 차지한 이후에 개명된 명칭이다. 동명왕이 비류수 졸본천(沸流水 卒本川)에 도달하기 이전에 한무제가 현도군에 고구려(高句麗)현을 설치하였다. 현도군은 무제 원본사년(武帝 元封四年)(기원전 107년)에 설치되었으며 유주(幽州)에 속하였다. 현이 3개 있었으며 고구려(高句麗)가 그 중 수현(首縣)이었다. 고구려(高句麗)는 현 설치 이전에 일찍이 구려족(句麗族)의 거주지였다. 또한 현도, 낙랑도 무제 때 설치되었다(한지(漢志)). 여기에서 “고구만이(句麗蠻夷)”라고 칭하는 구려는 족명이 확실함이 증명되었다. 즉 한무제가 고구려(高句麗)현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 곳에 구려족이 이미 살고 있었다. 구려족이 사는 곳이 왜 고구려(高句麗)라고 불리워졌는가? 고구려(高句麗)족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구루(洵婁)였다. (삼국지(三國志), 고구려전(高句麗傳):구루자(洵婁者), 구려성명야(句麗城名也)(구루자는 구려의 성명(城名)이다.) 즉 루(婁)는 루(縷)로서 루(縷)는 려(麗)로 변하여 구루(句婁)는 즉 구려(句麗)라는 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구려족은 고양씨(高陽氏)의 혈족으로 고(高)를 성씨로 하고 거주는 고구려(高句麗)현으로 되어 있다.

유리왕이 한의 고구려(高句麗)현을 차지하였다. 한의 고구려(高句麗)현은 국내(國內)안의 모든 지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를 고구려(高句麗)로 고쳐서 구려는 족명이 되었다. 고려 명칭은 유리왕 33년부터 사용되었다. 때는 한의 신분천봉원년(新奔天封元年)(기원 14년)이다. 이 때부터 졸본부여(卒本扶餘)는 정식으로 고려로 개명되 고구려(高句麗)로 불렸다. 고구려(高句麗)족명은 동한(기원 25-220년)시이의 <논형(論衡)>에 보이는데 그 <길험편(吉驗篇)>에 주몽신화 이전에 “북이고리국(北夷藁離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의 “고(藁)”자는 고(高)로 읽는다. 주몽의 후예가 고려를 국으로 세웠다. 동한 때부터 “고리국(藁離國)”, “고리국(槁離國)”, “색리국(索離國)”으로 불리워 왔으며, 금대(金代)에 이르러 모두 “고려국”으로 칭하였다. 상기한 자(字)들은 비록 다르지만 발음은 같다. 그러나 김약(金岳)은 재미있는 도표를 제시하고 있다. 동해연안의 고구려(高句麗)족, 동예(東穢), 옥저족(沃沮族)의 언어와 품습은 다르다. 그래서 “고양씨 혈족-구려족-고구려(高句麗) ; 동명의 후예-고려족-역시 고구려로(高句麗)로 칭함”이라고 제시하면서 두 개 어족의 민족은 인습관계로 얽혀있지 족습(族承)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개 어족의 족승관계로 맺어지지 않고 어떻게 인습관계로 맺어지면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점은 중국학자들이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高麗)-고구려(高句麗)족의 래원(來源)문제는 옛사람과 현인까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설을 제시하고 있다.

- 1) 맥인설(貊人設), <후한서(后漢書), 고구려전(高句麗傳)>에 기록되었다.
- 2) 부여설(扶餘設), 중국학자 왕건군은 고구려(高句麗)인은 부여(扶餘)에서 왔으며 부여(扶餘)는 숙신계통의 퉁구스족이다. 고구려(高句麗) 인은 숙신인의 후예이다.
- 3) 퉁구스설, 일인(日人) 白鳥高吉은 한대의 소위 예맥(穢貊)은 부여(扶餘), 고구려(高句麗) 위주로 되어 있으며 요동 변방으로부터 조선 동북지방까지 퉁구스민족이 널리 분포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4) 동유설(東有設),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의 고구려현(高句麗懸)에 대한 주해(註解)로서 응초(應初)가 말하기를 ‘고구려호(高句麗胡)’하고 하면서 흉노(匈奴)의 동쪽에 거주하는 호(胡)를 동호(東胡)로 칭하였다. 지리적 입장에 의하면 고구려(高句麗)는 동호(東胡)에서 기원하였다.

5) 예맥(穢貊)의 고조선설(古朝鮮設), 황유복(黃有福)은 고구려(高句麗)족과 고조선 모두 예맥(穢貊)계 민족이다. 그들은 원래 고조선의 “색리구려(索離句麗)”인 즉 산성인(山城人) 또는 산지(山地)의 민(民)에 속한다. 따라서 통상 “색리구려인(索離句麗人)”이라는 긴 명사로 불렸다. 여기에 근거하여 고구려(高句麗)라고 부른다.

6) 상인설(商人設), 范□는 인식하기를 상인(商人)과 고구려(高句麗)이은 모두 오방토(五方土), 오부(五部)를 가지고 있다. 즉, 토지는 국유이며, 성(城)과 향(鄉)은 구별되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자리에 앉고 가족 재산은 사유이며, 항상 흰옷을 입고, 귀신을 숭배하였다. 동일하게 고양(高陽)씨의 후예들이다. 김악(金岳)은 상기한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1)부여(扶餘), 고구려(高句麗)는 모두 숙신 계통의 통구스족이 아니다. 2)중원왕조는 북방의 민족에 대하여 대부분 호(胡)라고 칭하였다. 3)소위 “고조선”은 <이십사사(二十四史)>내에는 다만 기자조선과 위씨조선에 대한 기록만 있다 <삼국사기> 이후의 작품인 <삼국유사(三國遺事)>에 “고조선” 즉 소위 왕검조선(王儉朝鮮)으로 기록된 것은 당(唐), 송(宋) 시기의 작품인 <고기(古記)>속에 묘사된 신화전설을 근거로 쓰여졌다. 김악은 또한 고려족은 상인(商人)의 한가지로 동북방 방향으로 이전한 상인(商人)은 아니고 동북방의 토착민으로 형성된 민족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상기한 여러가지 주장들은 관개토왕비명과 모두루 무덤의 <묵서제기(默書題記)>로 대신할 수 있으며, <논형(論衡)>외에 모두 <이십사사(二十四史)>에 기록된 내용은 <관개토왕비명>과 <모두루 무덤묵서제기>와 일치하다고 보고 있다.⁵⁾

5. 고인돌축조와 족속문제

길림 남쪽의 지석묘는 동풍(東豐), 해룡(海龍)(현 매하구시(梅河口市)), 정자(靖字)의 에 무송(撫松), 혼강(渾江), 통화(通化), 집안(集安), 유하(柳河)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석묘는 합달령(哈達嶺) 남쪽, 장백산 동쪽 산지와 구룡지구(九龍)에 분포되어 있다. 더욱 요녕, 길림의 분수령(分水嶺)에 가장 집중, 밀집되었다. 지석묘는 가장 북쪽으로 동풍현 남쪽에 까지 분포되었다. 길림 남부 지석묘는 보통 낮은 산언덕의 정상과 산허리에 축조되었다. 소량이 높은산 정상(해룡백석구(海龍白石溝) 지석묘)과 평지상에 있다. 고인돌의 축조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가공되었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장방형이며 어느 것은 정교하게 가공되었다. 석재(石材)는 현무암, 편마암, 사력암 등이며 때때로 석회암 판석도 사용되었다. 고인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보통 1~1.3m, 어느 것은 2m에 접근하고 있다. 어느 것은 1m의 높이가 안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 소를 막론하고 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같다. 즉 절반 매장된 3매의 판석이 묘광을 에워싸고 다시 그위에 큰 판석을 올려놓아 뚜껑돌을 삼았다. 뚜껑돌은 모두 두텁고, 육중하다. 석재는 묘광보다 훨씬 커서 주위에 처마처럼 돌출되었다. 묘실 내에는 대부분 바닥에 돌을 깔았다. 묘실 외부끝은 축벽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축벽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한 장의

5) 金岳, 東北貊族源流研究, 遼海文物學刊 2, 1994, pp51-66.

돌이다. 소수는 2매가 연결되었다. 그리고 생토를 바다로 삼지는 않았다. 묘실은 대부분 장방형이며, 3면 측벽을 쌓는 방법을 모두 두 매의 측벽사이에 1매를 끼우는 식으로 해서 막았다. 그리고 두매의 측벽의 후단이 외부로 일부가 돌출되게 하였다. 3매로 측벽을 쌓고 일면이 터져 있는데 그 곳은 묘문으로 보고 있다. 묘문(墓門) 방향은 남쪽 또는 서쪽이다. 산세를 따라서 축조되었다. 그러나 동쪽 또는 북쪽으로 향한 묘문은 없다. 양쪽 측벽과 끼워진 1매 사이에 대칭은 비교적 철저하다. 어느 측벽 상에는 흙을 파서 1매를 끼워 봉합시켰다. 접합 부분이 대단히 철저하게 처리되었다. 개별적으로 묘하대사(遼河大沙) 1호 지석묘의 묘문 앞에 절반이 왼쪽에 묻힌 1매의 긴 판석이 있는 예도 있다. 지석묘는 묘실이 지상에 노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지석묘는 측벽과 같은 크기의 판석으로 뚜껑을 덮었다. 그러나 묘실은 지하에 구축되었으며 다만 뚜껑들만 노출되었다. 그러한 무덤들은 중국에서는 석개묘(錫蓋墓)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지석묘와 관계가 있지만 같은 유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⁶⁾ 상기한 내용 중 반지하의 묘실을 3매로 축조하고 비교적 큰 뚜껑들을 얹어놓은 것은 우리나라 강화도의 북방식 지석묘를 연상시키고 후자 석개묘의 뚜껑들만 지상에 노출된 것은 우리의 변형 또는 남방식 지석묘를 연상시킨다.

요동반도의 지석묘와 길림성 통화지구의 지석묘는 관계를 맺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길림성 지석묘는 통화지구의 통화시, 유하구시, 유하현, 동풍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었다.

이 지구는 요동 동부와 북부의 신빈현(新賓縣), 청원현(淸源縣), 개원시(開原市)와 접경지대이다. 신빈, 청원, 개원에는 모두 지석묘가 있다. 그 곳은 요동반도 지석묘 분포상의 북쪽한계이다. 통화 지구의 지석묘는 요동반도 지석묘의 전파와 영향을 받았다. 통화 지구 지석묘의 특징에 의하면 지석묘는 대부분 산언덕 정상에 무리를 지어 축조되었으며 때로 대(大)석개묘, 석관묘와 같이 무덤군을 이루고 있다. 지석묘의 방향은 산마루가 흐르는 방향과 같다. 지석묘의 묘문은 대부분 남향이다. 지석묘 부근에 청동기 시대의 유적이 있다. 싱기한 내용은 요동 반도 지석묘의 특징과 일치한다. 통화지구 지석묘는 대부분 중소형이 많다. 요동반도 지석묘 분류에 의하면 대형 지석묘는 시기가 이르다. 통화지구에는 대형 지석묘가 없다. 이 것은 통화지구 지석묘가 요동반도 지석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고 있다. 통화지구의 지석묘는 전체적으로 요동 반도의 것과 같다. 그러나 지석묘의 결구 및 소재지 유적 출토의 유물은 뚜렷한 지방색을 가지고 있다.

통화지구지석묘의 연대와 문화성질은 요동 반도의 그것과 다르고 연대도 늦다. 그것은 요동반도 지석묘가 북쪽에서 전파된 영향의 결과이다. 중국의 멘힐(석주자(石柱子))은 산둥(山東), 사천(四川), 운남(雲南), 광서(廣西), 길림(吉林), 하남(河南), 하북(河北)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멘힐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 용도와 성질로 보고 있다.

- 1) 묘앞의 표지, 즉 묘표(墓標)
- 2) 일종의 기념물, 또는 일종의 기념비
- 3) 영석(靈石), 선석(仙石), 거석(巨石)의 숭배물.

요동반도의 멘힐은 지석묘와 같이 있다. 중국내의 멘힐의 공능(工能)은 지석묘와 멘힐의 관계에 의하여 지석묘는 무덤, 멘힐은 묘앞의 묘표로 보면서 전자와 후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⁷⁾

6) 王洪峰, 吉林南部石棚及相關問題, 遼海文物學刊 2, 1993, pp1-8.

6. 종합 고찰

상기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단산문화의 주인공은 예맥족(穢貊族)이다.

둘째, 요동반도일대와 길림성 통화지구의 지서묘 축조자는 예맥계(穢貊系)이다.

셋째, 북방계 청동검은 네개 구역 : 대소릉하(大小凌河)구역, 요하 구역, 송화강 구역, 요동반도구역으로 나누어졌지만 한반도 부여 송국리(扶餘 松鞠里) 출토의 동검(銅劍)은 예맥(穢貊)계의 대표적 유물이다.

문제점 ; 첫째, 동이족의 동쪽 이동, 고아시아족 또는 숙신 그리고 동호 등이 예계(穢系)와 한반도문화에 미친 영향이 여하(如何)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조영군(趙永軍), 동북지구신석기시대적방지(東北地區新石器時代的房址), 북방문화(北方文物)2, 1995, pp.21-30. 글속에 주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주거지 주인공의 족속(族屬)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다. 장차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주거지는 신석기시대에 반수혈식주거지이며 이러한 주거형태는 청동기시대와 초기철기시대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篇, 遼東半島石棚,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44.